

<동정자료>

박선호 1차관 “우수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알리는 특별한 기회 될 것”

15일 부산EDC 착공식·박람회장 사전점검·한-아세안 스마트시티 등 성공 개최 당부

□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(금) 한-아세안 스마트시티 행사가 열리는 부산을 방문하여 행사현장을 점검하고,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.

□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* 착공식 현장을 방문해 행사 프로그램을 점검하고, 행사기간 중 1000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.

*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: ‘스마트 로봇도시’, ‘물특화 도시’, ‘가상현실 기술이 융합된 증강도시’의 3대 플랫폼 구축

○ 부산EDC 착공식은 오는 24일(일) 17시부터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.

○ 박 차관은 “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관련 각종 기술·서비스를 구현하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”이라며 “이번 착공식이 한-아세안 정상회의 전일에 개최되는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알리는 성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□ 이어 박 차관은 한-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열리는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사전 리허설을 실시했다.

○ 스마트시티 분야 한-아세안 협력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장관회의는
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장관,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인 가운데 오는 25일 개최된다.

-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페어가 열리는 벅스코 제2전시관을 방문하여 공간배치, 전시콘텐츠, 그룹투어 동선 등을 면밀히 점검 했다.
- 또한, “스마트시티 페어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우수기술과 제품을 국내에 홍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2019. 11. 15.

국토교통부 대변인